

금융시스템과 경제발전 -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중심으로

Financi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icrocredit Institutions

장덕주 Chang, Doug Joo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논문은 전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을 일별하고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스템의 발전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 본다. 한편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프로그램이 빈곤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많은 연구결과와 다른 한편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효과도 발견된다는 상이한 연구보고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마이크로크레디트 모델의 두 가지 대안 - 그라민 은행식 사회적 기업 모델과 이윤추구형 SKS마이크로 파이낸스 모델을 비교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는 관계금융 능력에 있음을 보인다.

핵심주제어: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 그라민 은행식 사회적 기업모델, 이윤추구형 SKS 마이크로 파이낸스 모델

I. 서론

소액신용대출 사업 또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은 지난 20여 년 동안 범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는 필요한 자금을 예금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에서 펀드투자자를 모집하여 조달하고 자금의 운용도 대출 이외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들이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왕성하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난 2009년 12월 정부의 적극적 후원으로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문제 해결과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희망과 기대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추세이다. 만약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계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을 받은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총재의 확신처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확장으로 조만간 빈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만 있다면 이 보다 중요한 단일 프로젝트가 또 어디 있겠는가?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제적 효과는 빈곤완화와 분배구조 개선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우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에 따른 분배구조의 개선으로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정치가 안정되면 이 또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이크로크레딧이 지속가능한 금융모델이 된

다는 가정 하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만약 연체율이 급증하고 부실대출이 심화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충분히 올리고 채권추심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현행 사금융 대부업 또는 고리대금업 방식에 다름 아니다. 과연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지속가능한 모델인가? 비록 10여년 이상의 성공사례가 적지 않지만 여전히 상업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외부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NGO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디트도 많이 있다. 한편 NGO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대출만아니라 예금, 보험 등으로 업무분야도 다양화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 등 비즈니스로서도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오늘날의 많은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곤계층의 금융필요를 채워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지나친 고금리와 무리한 빚 독촉으로 다수의 빈곤층 고객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¹⁾ 어느 쪽 의견이 옳을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NGO형 마이크로크레디트일까, 이윤추구형 마이크로파이낸스일

1) 작년 2010년 11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에서는 대출금 빚 독촉과 관련된 자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를 비난하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이윤추구형 마이크로파이낸스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총재이며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도 노르웨이 후원금 전용과 탈세 혐의로 정부의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앞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의 장래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소액신용대출은 미소금융사업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된 것과 다름없는데 올해부터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의 자료를 통해 앞으로 지속가능성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까? 아니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제3의요소가 있을까?²⁾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화두로 하여 우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과 갓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현황과 발전가능성을 살펴 본 다음 마이크로크레딧이 하나의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본다. 다음 절에서는 국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그 다음 절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의 빈곤완화 효과, 즉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제발전 촉진효과를 검토한다. 이어서 마이크로크레딧의 금융시스템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특별히 관계금융적 특성을 활용한 장기 경제발전예의 기여가능성을 논한다. 마지막 절은 논문의 요약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코멘트로 결론에 대한다.

II. 본론

1.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마이크로크레딧 또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은 1976년 방글라데시 치타

2) 무하마드 유누스의 그라민은행이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이나 고리대금업과 달리 극빈층에게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고도 대출금 상환율 95-98%를 달성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연구하고 그것을 각국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다.

공대학 경제학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인근 조브라 마을의 대나무의 자 등을 만들어 파는 극빈층 여성들에게 소액의 종자돈을 대출해주면서 시작된 독특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누스의 소액신용 대출 기관은 1983년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식 은행으로 전환하였고 그 후 4반세기를 지나며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09년 현재 총자산 15억 달러, 2185개 지점, 1만8151명 직원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총자산의 절반이 넘는 8억 달러를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라민은행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 20년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이 크게 번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전 세계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수는 1928개에 달하며 총대출액 652억 달러, 총대출고객 9240만명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³⁾

마이크로크레디트를 금융소외계층인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스템 혹은 금융기관이라고 본다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김규한(2009)은 다음 다섯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대출의 주대상자가 제도권금융에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고,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은 다루지 않는다. 둘째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출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기존의 서민금융기관과 다르다는 점이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대출서비스가 자산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대출과 함께 창업지원이나 기술지원 같은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셋째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주 고객인 금융소외계층의 필요에 맞춰서 건당 대출규모를 매우 소액으로 운영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금융거래비용을 높이지만 다

3)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의 전세계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기구 Microfinance Information Exchange(MIX)의 홈페이지(<http://www.themix.org>) 참조.

른 한편으로 대출금 상환율을 높이는 데도 일조한다. 넷째로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대출대상자를 선정할 때 종합적인 사업능력은 물론 그 사업의 특성 상 얼마나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는가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무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대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집단대출, 누진대출, 분할상환, 상환주기의 단축 등 독특한 대출방식”을⁴⁾ 활용한다.⁵⁾

마이크로크레디트는 그라민은행이 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아시아와 중남미 등 저개발국가에서 비정부단체(NGO)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초기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은 비영리단체로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최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의 신용대출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특히 저개발국가의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다음과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⁶⁾ 첫째, 초기에는 은행대출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모든 계층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 둘째,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소액신용대출에서 예금이나 보험, 또는 지급결제 등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로 발전하였다. 셋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업무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초창기의 NGO 마이크로크레디트 기

4) 김규한(2009) p7 참조.

5) 그라민은행의 대출자선정 기준 가운데 특징적인 것으로는 여성에게만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라민은행의 대출상환율이 95-98%에 이르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추측된다.

6) Torre-Vento,(2006)와 Rhyne-Otero(2006) 참조.

관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여 상업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정부나 자선단체의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입만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⁷⁾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활동에 많은 자극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에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발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결합하면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대출수요의 감소와 대출회수율의 저조 등 난관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모형과는 다른 미국의 실정에 맞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발전한다. 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은 대출뿐 아니라 창업훈련을 주요한 서비스로 제공하며 주로 외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⁸⁾

유럽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발달되고 협동조합도 많이 보급되어 있어 미국에 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마이크로크레딧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 EU 정부의 주도로 대형 금융기관들과 대기업의 참여로 마이크로크레

7) 이와 같이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로 성장한 대표적인 예가 비크람 아쿨라(Vikram Akula)가 창업한 SKS 마이크로파이낸스이다. SKS는 전세계 연기금,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아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2010년 말 현재 2403개 지점에서 총 47억9200만달러를 신용대출해주고 있다. SKS 홈페이지(<http://www.sksindia.com>) 참조.

8) 이와 같이 미국에서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마이크로크레딧 스타일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환경이 이들 국가와는 달리 소규모 자영업 부문의 규모가 작아 마이크로크레딧 시장이 좁고 또한 창업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 창업훈련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창업훈련 비용도 높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재정자립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Morduch(1999) 참조.

디트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으로 미국의 액시온(Accion USA)과 쇼어 은행(Shore Bank), 영국의 글라스고 갱생펀드(GRF)과 자선은행(The Charity Bank Limited), 프랑스의 아디(ADIE; 경제권리연합), 이탈리아의 ‘윤리은행’(Banca Etica) 등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는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민간주도로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설립의 계기가 된 것은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 부족과 상대적인 빈곤층 확대로 정부의 고용 및 창업지원 대책 등 복지정책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은 지난 2000년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한국지부로 설립된 신나는 조합이다. 그라민은행의 정신에 따라 경제적 극빈층을 대상으로 생업자금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2003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소외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경영 및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지난 8년 동안의 누적 대출실적이 1385건 290억 원에 이른다.

마침내 2009년 12월 정부 주도로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어 전국적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기업과 은행이 적극 호응함에 따라 1년 사이에 104개의 미소금융지점이 생겨났다. 2010년 말 현재 미소금융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미소금융 지점의 직접대출과 기존의

복지사업자를 통한 간접대출을 합하여 2만4000여명에게 총 1165억 원을 대출하였다. 월별 실적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미소금융은 재원조달 면에서 기부금과 휴면예금에 100% 의존하는 아주 독특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다.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 4.5%라는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⁹⁾ 앞으로 재정자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해가려면 금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화하고 신용평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2. 마이크로크레딧과 경제발전

(1) 빈곤완화와 분배개선

과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그 원래 취지대로 극빈층 가계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소득분배를 완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신용 극빈층 영세사업자들에게 그 필요에 따른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들은 조만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재투자에 필요한 액수 이상의 수익을 올려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논리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시스템과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선도한다는 아이디어는 Schumpeter(1934)와 Gerschenkron(1966)의 경제발전이론의 핵심 요소로서 McKinnon(1973)과 Shaw(1973)의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된 후 지

9) 그라민은행은 대출금리가 20%이다. 5%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꽤 높은 금리이다. 비록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반영한 리스크프리미엄과 재투자 필요에 따른 적절한 양(+)의 이윤을 반영한 수치이다.

난 반세기 동안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많은 실증분석과 검증이 행해졌다. 결론은 대체로 금융의 발전수준이 장기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를 가진다는 쪽인 듯하다.¹⁰⁾ 최근에는 금융발전이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많은 연구자와 경제개발 실무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돋우었다.¹¹⁾ 논지인즉 금융발전으로 저소득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향상의 기회도 증대하기 때문에 분배가 보다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을 막론하고 총금융서비스의 증대도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데 하물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가’에게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야 말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더욱 빈곤퇴치와 분배의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발전이 빈곤완화와 분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Imai, Arun and Annim(2010)은 인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로 인한 빈곤층 가계의 금융접근성 증대가 과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보았다. 특히 농촌에 있어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한 생산적 목적의 대출이 빈곤감소에 매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Montgomery and Weiss(2011)는 파키스탄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업적 이윤추구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가 과연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¹²⁾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검증해보았는데 긍정적인 결론을 얻

10) 그러나 인과관계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금융발전이 따라온다는 로빈슨(1952)의 주장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도 없지 않으니 딱 부러지게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11) Beck, Demirguc-Kunt and Levine(2007) 참조.

12) 지난 2000년에 열린 새천년정상회의(The Millenium Summit)에서 세계지도자들이 채택한 UN 새천년선언 가운데서 제프리삭스가 이끄는 소그룹이 끌어낸 8개의 목표를 말

었다. 또한 McKernan(2002)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아주 재미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라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프로그램 중에는 자본재 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주는 대출업무 외에 환경과 위생교육, 공동체 협력을 위한 훈련 등 신용대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금융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과연 이와 같은 마이크로크레딧의 비금융 프로그램도 대출수혜자의 자영업 이윤증대에 도움이 되겠는지 검증하였는데 매우 큰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발견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미소금융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³⁾

다른 한편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완화와 경제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들이 있다. Elahi and Danopoulos(2004)는 ‘제3세계 국가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의 설립이 편만한 빈곤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오지는 않겠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한다. 첫째로 마이크로파이낸스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논쟁적인 이론적 가정에 기초해있다. 둘째로 마이크로크레딧의 ‘결핍’이 제3세계의 개탄할 만한 빈곤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크레딧의 ‘공급’이 이 나라들의 빈곤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셋째로 제3세계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빈곤을 영구화시키는데 일조할 새로운 기득권세력을 창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다. 192개 UN 전회원국과 23개의 국제기구가 저빈곤, 교육, 여성, 환경 등 개발관련 핵심 목표 8개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 13) Hoque(2004)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많은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신용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NGO들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잠재적 사업자에게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 훈련을 꾸준히 제공해주지 못한 데 있다고 한다.

이다.

또 하나의 비판적인 논문을 소개하고 싶다. Kundu and Mitra(2010)는 보다 구체적으로 벵골지역의 ‘기초농촌신용조합(PACS)’이라는 전형적인 소그룹방식의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이 과연 그 지역 농촌주민의 경제적 복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이 그 지역주민의 경제후생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황올도 높는데 왜 뚜렷한 소득향상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기술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의 결핍과 조합원이 만든 상품의 시장판매를 촉진할 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효과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농촌주민들을 직업적인 고리대금업자의 마수로부터 보호해주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빈곤 퇴치나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지만,¹⁴⁾ 정치적 법적 문화적 환경이 잘 뒷받침해 주기만 한다면 빈곤완화와 분배구조 개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2) 지속가능성과 관계금융

그러면 이와 같은 큰 잠재력을 가진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어떤 곳에서는 성공하고 다른 곳에선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음을

14) Karnani(2009)는 최근의 마이크로크레딧 열풍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조적인 잠재적 기업가이며 가치의식적인 소비자’로 보는 낭만적 시각은 빈곤층을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규제장치의 중요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마이크로크레딧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음으로 논증하고 있다.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요 다른 하나는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인도의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 SKS를 비교하여 보면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라민은행의 성공비결은 대출받는 주민과 대출해주는 은행 사이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보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데 있다.¹⁵⁾ 그런데 만약 사회적 기업가의 정체성이 분명한 유누스 총재와 달리 비전과 사명감도 없는 공무원들이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라는 특혜를 선별해서 허가해주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을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금융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냉철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정부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하마드 유누스의 가장 큰 공로라고 생각한다.¹⁶⁾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재정자립, 즉 지속가능성의 문제이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정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른 아닌 재정자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누스는 이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15) Fama(1985)는 ‘은행이 왜 특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관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은행중심형(bank-based) 금융시스템이 시장중심형(market-based) 금융시스템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6) 예를 들어 인도나 필리핀 등의 저개발국에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실시된 정부주도의 서민금융이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 대출회수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재정손실, 그리고 부패 때문에 실패로 끝나게 된 사례가 많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정책적으로 유지하다보니 대출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여 정치적 특혜의 기회가 되었고, 정작 빈곤계층은 대출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저리의 정책금융을 주던 은행은 악화되는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내림으로써 저축유인을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의 복지성 서민금융은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정체성을 철저히 지키고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달성하였다. 대출고객이 원하면 모두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라민은행에 예금계좌를 갖도록 권장하여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대출금리를 정할 때에도 정부의 포퓰리즘적 저금리 정책과 달리 고객이 의지만 있으면 상환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적절한 리스크프리미엄과 운영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인 명목금리 20% 정도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¹⁷⁾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출받는 주민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서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방식도 주 1회 만기 1년 안에 원리금 다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대출회수율을 95-98%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물론 2006년 노벨평화상 받은 이후 세계적인 후원금의 답지로 큰 도움을 받긴 하였지만 여전히 자립도 100% 달성의 주된 요인은 이와 같은 재정자립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⁸⁾

한편 인도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 SKS는 그라민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수년 안에 거대한 국제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비크람 아클라의 SKS는 1998년 기금 5만2000달러의 자선단체로 시작하였으나 2006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인사들에게서 투자를 받으면서 영리업체로 변모하였다. 그 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3억5천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2009년 매출은 2억 1200만 달러, 순익은 3800만달러에 달하는 거대금융기업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업적인 이윤추구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가 지속가능성

17) 방글라데시의 물가상승률은 2009년 5.4%, 2010년 8.1%였으니 명목금리 20%이면 실질금리 13-15% 정도로 정부의 복지성 정책금리와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8) 그라민은행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grameen-info.org>) 참조.

을 담보하는 한 가지 주요한 방식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Chahine and Tannir(2010)는 NGO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로 전환한 회사들의 금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조사하였는데, 한편으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서비스 받는 빈민층 고객의 확대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의 질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이윤추구형 마이크로파이낸스 기업으로의 발전은 경영 독립성 확보와 지속가능성 향상의 이점이 있는 동시에 빈곤층의 자활과 복지를 돕는다는 본래 마이크로크레딧의 서비스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ollinger, Outhwaite and Cordero-Guzman(2007)에 따르면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의 경우에도 재정자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자금조달과 운용, 가격결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전략 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관계금융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본래 정신에 충실하면 고객과 장기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이크로크레딧에게는 대출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아니라 대출받은 고객의 사업성공과 소득향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과 관계금융 관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마이크로크레딧의 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논문이 특기할 만하다.

먼저 Venkataramany and Bhasin(2009)은 인도의 마이크로크레딧 관련 사업의 성공사례를 연구하면서 주로 여성멤버로 구성된 마을의 자활그룹과 상업은행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은행이 관계금융 방식으로 소액신용대출

을 담당함으로써 독자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영세성의 약점을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직은 초보단계인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방향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 크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희망흙씨대출 등 기존의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마이크로크레디트 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좋은 논문인 것 같다.

다음으로 O'Rourke(2006)는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가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민관합동의 공동 파트너십이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이 설립 1년 만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부주도 하에 대기업과 은행의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진 태생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정부주도냐 민간주도냐, 또는 독립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소액신용대출의 수혜자에 대한 궁극적 관심과 개별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로 요약되는 관계금융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활성화와 금융소외의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체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¹⁹⁾ 장기적으로 정보비용을 절감하는 관계금융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 이진호·정찬우(2010) 참조.

III. 결론

본 논문은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마이크로크레딧 또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이크로크레딧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의 아이디어로 창안되어 최빈곤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독특한 방식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이 1983년 그라민은행으로 공식 발족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인도, 필리핀 등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NGO 활동이 보급되어다가 1990년대 들어서서 미국에 적용되면서 선진국으로도 파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UN회원국 합의 등의 환경변화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경영하는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의 설립이 유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그라민은행의 한국지부로 출발한 신나는 조합과 2003년 발족한 사회연대은행에 이어 지난 2009년 12월에는 정부 주도로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하면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앞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마이크로크레딧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담보하려면 어떤 형태와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론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그동안 빈곤완화와 분배구조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근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알아보았다. 다른 사정이 동일할 경우 마이크로크레딧이 빈곤층의 소득증가에 대체로 양(+)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

지만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 못했다는 보고도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결과 중에는 한편으로 대출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훈련과 경영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한 NGO 형태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기업형 마이크로파이낸스 회사가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부상하면서 오히려 빈곤상태를 계속 유지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논문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잠재적 영향력과 사회기여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낮추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빈곤퇴치나 분배정의 달성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그라민은행의 사회적 기업 모델과 SKS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모델을 비교하여 보았다. 어느 경우나 관계금융 능력의 향상과 정착이 마이크로크레디트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모델로 성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와 동시에 민관협력의 파트너십 형성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관건임도 보였다.

본 논문이 이제 막 1년이 지난 미소금융사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먼저 지속가능한 모델의 기초인 관계금융 노하우를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세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부작용의 장기적 의미와 대안을 찾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규한,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진로와 과제」, 한국비영리연구 제8권 제1호(pp3-36), 2009
- 노대명,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신용 증진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확대 방안」, 제1회 쿨머니 컨퍼런스 발표자료, 2006
- 박종현, 「신용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제1회 쿨머니 컨퍼런스 발표자료, 2006
- _____, 「해외의 대안금융」,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발표자료, 2007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계획』, 2008
- 이건호 · 정찬우,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0. 2
- 이중수, 「대안금융 발전 방안」,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발표자료, 2007
- 재정경제부,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보도자료 (2006. 12), 2006
- Aghion, B and J. Morduch, The Economics of Microfinance, MIT Press, 2005
- Beck, Demirguc-Kunt and Levine(2007), “Finance, inequality and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27-49, 2007.
- Buckley, G., “Microfinance in Africa: Is it either the Problem or the solution?”, World Development 25, 1081-1093, 1997
- Chahine, S. and L. Tannir, “On the Social and Financial Effects of the Transformation of Microfinance NGOs”, Voluntas, Manchester, Sep 2010
- Dunford, C., “In Search of Sound Practices for Microfinance”, Journal of Microfinance 2, 6-12, 2000

- Elahi, Khanakar G. and Constantine P. Danopoulos, “Microfinance and Third World Development: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Summer 2004
- Fama, E., “What's Different about Bank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5, 29-39, 1985
-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62
- Hoque, Mohammad Ziaul, “Stagnated Growth of Microenterprises and Flawed Role of Credit NGOs : Evidence from Bangladesh”, Humanomics, 2004
- Imai, Katsushi S., Thankom Arun and Samuel Kobina Annim, “Microfinance and Household Poverty Reduction: New Evidence from India”, World Development, Oxford, Dec 2010
- Ingrid M. and J. D. Pischke, Microfinance Investment Funds: Leveraging Private Capital for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2006
- Karnani, Aneel, “Romanticising the poor harms the poor”,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Jan 2009
- Kundu, Amit and Suranjana Mitra, “Group Lending Scheme Operating Through Primary Agricultural Credit Society: A Critical Assessment”, The IUP Journal of Managerial Economics, 2010
- Ledgerwood, J., Microfinance Handbook: A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Perspective, World Bank, 1999
- McKernan, S., “The Impact of Microcredit Programs on Self-employment Profits: Do Noncredit Program Aspects Matter?”,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Cambridge, Vol 84 Feb 2002

- Mckinnon, R.,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73
- Montgomery, Heather and John Weiss, “Can Commercially-oriented Microfinance Help Mee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vidence from Pakistan”, World Development, Oxford, Jan 2011
- Morduch, J., “The Microfinance Promis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7, 1569-161, 1999
- Nourse, T., “The Missing Parts of Microfinance: Services for Consumption and Insurance”, SAIS Review 21, 61-70, 2001
- O'Rourke, Alexandra,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Key To Sustainable Microfinancing”,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2006
- Pitt, M. M. and S. R. Khander., “The Impact of Group-based Credit Programs on Poor Household in Bangladesh: Does the Gender of Participants Matter?”,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958-996, 1998
- Pollinger, J. Jordan, John Outhwaite and Hector Cordero-Guzman, “The Question of Sustainability for Microfinance Institu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Jan 2007
- Rhyne, E. and Otero, M., “Microfinance through the Next Decade: Visioning the Who, What, Where, When and How”, A Paper Commissioned by the Global Microcredit Summit, 2006
- Schreiner, M. and J. Morduch., “Replicating Microfinance in the United Stat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J. Carr and Z. Y. Tong(eds) Replicating Microfinance in the United States, 2001
-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12, Translated By Opie, 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Sengupta, R. and Craig P. A. 2008. "The Microfinance Revolution: An Overview", FRB of St. Louis Review Jan./Feb. 2008, 9-30, 2008
- Shaw, E. S.,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3
- Torre, M. L. and Vento, G. A., Microfinance, 2006
- Venkataramany, Sivakumar and Balbir B. Bhasin, "Path To Financial Inclusion: The Success Of Self-Help Groups-Bank Linkage Program In India", The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 Research Journal, Nov 2009

ABSTRACT

Financial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icrocredit Institutions

Chang, Doug Joo

Department of Economics,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global and domestic development of microcredit movement and examines its economic effects. Most research papers report th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f the microeconomic programs on poverty alleviation and reducing income inequality. Some papers, however, report the insignificant or negative effects. Next, comparing the two alternative models of microcredit - the social enterprise Grameen Bank model and the commercially oriented SKS Microfinance model - the essential factor that may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icrocredit movement is shown to be the relationship banking capability.

Key-words: Microcredit ,Grameen Bank model, SKS Microfinance model

* 투고일: 2011년 10월 28일, 심사일: 2011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00일